

도시경관 요소와 지역활성화의 관계 연구 -인천 배다리 지역의 경관요소를 중심으로-

위인환¹, 김성규^{2*}

¹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²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Landscape Factors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Focusing on the landscape elements of the Incheon Baedari area-

In-Hwan Wi¹, Sung-Kyu Kim^{2*}

¹Dept. of Urban Planning,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²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최근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장소성과 도시경관 요소들간에 인과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도시경관을 주제로 하는 기존 연구들은 물리적 관점의 요소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지역 활성화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간헐적으로 비물리적 관점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경관 분야에서 비물리적 경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는 인천 배다리를 대상으로 도시경관요소와 지역 활성화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배다리의 근대건축물과 특화가로의 경관특성을 물리적 경관적 요소로 선정하였고 이 지역에 내재된 배다리문화와 근대역사자원을 비물리적 경관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로 방문 만족도와 지역 인지도 향상을 위해선 물리적 요소보다는 비물리적 경관요소의 활용과 문화적 경관요소의 계획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방문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특화가로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 배다리의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경관계획과 함께 비물리적 경관계획요소의 발굴과 지역특화사업 개발이 상호보완적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로 도출되었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promote urban revital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identity. Although limi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ausality between the local location and urban landscape factors, existing studies on the subject of urban landscape have shown limitations in applying it to regional activation a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ly on the elements of a physical perspective. From this point of view, research and interest in non-physical perspective are increasing intermittently in recent years, but research on non-physical landscapes in the field of urban landscape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landscape factors and regional activation targeting Incheon Baedari. To this end,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Baedari's modern architecture and specialized street were selected as physical landscape factors, and the Baedari culture and modern historical resources inherent in this area were selected as non-physical landscap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use of non-physical landscape factors and planned consideration of cultural landscape factors rather than physical factors are necessary to improve visit satisfaction and local awarenes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pecialized street is important as a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revisit rate. As a result, research has shown that in order to revitalize Incheon Baedari and form an urban image, the discovery of non-physical landscape planning elements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s along with physical landscape planning are necessary as a complementary means.

Keywords : Urban Landscape, Urban Revitalization, Physical, Non-Physical, Cultural Landscape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Sung-Kyu Kim(Chungwoon Univ.)

email: sk1616@chungwoon.ac.kr

Received November 21, 2023

Revised December 20,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인간의 생활문화와 사회활동이 깃들어 있는 공간으로, 과거에는 건축물, 도로, 광장, 공원 등의 물리적 요소가 도시의 기능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였다. 그러나 Richard Sennett(2020)은 현대 도시는 '빌'이라는 물리적 구조와 '시테'라는 정신적 측면으로 나뉘며, 이로 인해 도시 활성화에는 문화와 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특히, 도시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최근에 중요시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이다. 어떤 도시를 떠올릴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도시의 고유한 특성인 정체성이며, 이것은 도시의 이미지와 문화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활동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도시 이미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지역의 도시경관을 주제로 하는 기존 연구들은 물리적 관점의 계획 요소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지역 활성화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특정지역을 연구하고 정체성과 장소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문, 사회생활 등 비물리적 관점에 대하여 함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지역 연구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비물리적 관점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경관 분야에서 비물리적 경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기존 물리적 경관에 대해서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요소를 조사하여 지역특성과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물리적 경관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 할 수 있는 경관요소를 도출하여 지역활성화의 기제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배다리의 도시경관 계획과 지역 활성화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서는 도시경관 요소를 물리적 및 비물리적 요소로 분류하여 배다리 지역의 핵심 경관 특성을 식별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배다리의 문화적 경관과 근대역사자원과 같은 비물리적 경관요소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인천 배다리의 고유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인천시 배다리 지역(동구 금창동 및 송현

동 일원)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다. 이 지역은 역사, 문화, 교육, 도시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다층적인 경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역사적 가치이다. 배다리 지역은 1883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개항장 주변에 조계지를 형성하면서, 개항장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이 모여 살면서 이 마을을 형성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는 문화적 특성으로 1960-70년대에 헌책방거리가 생겨나면서 현재도 아벨서점, 한미서점, 삼성서림 등 5개의 책방이 운영 중에 있다[2]. 이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셋째는 교육적 유산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보통학교인 창영초등학교와 서구식 신식교육의 선구지인 영화학교(현재의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교육적 유산은 지역의 경관적 요소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도시발전의 증거로 배다리는 인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도시경관 요소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지로서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배다리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다리의 경관 요소를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로 각각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인식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배다리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과 배다리 방문경험이 있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조사내용은 거주민을 대상으로 인천 배다리의 인지도와 지역 활성화 요구 정도를 측정하는 인식조사를 설문하였다. 그리고 배다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 경험과 방문목적은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경관 관련 기존 연구 자료를 탐색하여 도시경관의 이론적 개념과 물리적, 비물리적 경관을 고찰하였다. 현장 조사는 연구대상지 내 물리적, 비물리적 경관자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천 동구 배다리 지역의 배다리 인지도와 재방문율, 지역인지도, 만족도에 영향 관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시경관의 개념

도시는 다양한 상호 연관된 요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로 볼 수 있다. 각 요소는 정해진 틀 안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

한 체계의 주요 대상은 도시 지역이며, 도시경관의 핵심 개념은 경관 속성이다. 경관 속성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중에서, 경관적인 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괄성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 경관은 도시의 물리적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인식되며, 도시의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와 관련된 때 그 본질이 설명될 수 있다. 도시경관은 도시의 다양한 외관과 형태를 인지하는 체계적인 틀을 나타내며, 이것은 도시와 자연의 물리적 모습과 시각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각으로 체험되는 환경 전체를 포괄한다.

2.2 도시경관의 경관요소

도시경관을 구분한다면 물리적 경관과 비물리적 경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리적 경관계획 요소는 보이는 경관의 물리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경관의 시각적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3], 인간과 물리적 대상 간의 시각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수정하여 경관 자체를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4]. 자연경관은 산, 하천, 바다, 천연호수 및 자연 녹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 경관을 다루는데, 이는 주로 자연환경에 관련된 것이다. 도시 경관에서는 도시 공간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데, 케빈 린치는 "도시이미지의 구성요소는 도로, 경계, 지구, 절절점, 랜드마크로 정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행자의 시각에서 도시 경험은 도시의 건축물 형태, 스카이라인 및 공공 공간에 영향을 미치며, 건축물과 도시의 인프라 시스템은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축물의 외부 공간은 도시나 지역의 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이러한 건축물들의 집합은 도시나 지역의 전반적인 경관을 결정하게 된다[5]. 즉, 물리적 경관 계획 요소는 인간의 시각과 경험을 고려하여 경관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비물리적 경관의 해석으로 유완중(2019)은 시대상(視對象)의 비물리적 조작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비물리적 경관계획 요소라고 하였다. 경관컨트롤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요소로써 경관과 관련된 행정, 법, 제도적 측면과 주민의 가치관 및 의견수렴 등의 경관개선에 영향을 주는 비시각적 경관계획영역을 비물리적 경관의 의미라고 정의했다. 인간의 비물리적 경관과 환경 사이의 관계는 지리적 지역에서 생태,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양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관계는 종집단의 존재, 분포 및 풍부도를 조절하는 되먹

임 작용[6]을 포함하며, 이러한 다양한 경관은 지역의 역사적 조건과 해당 시대의 문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본래의 경관 조건은 특정 지역에서 과거의 인간 활동과 생활 흔적이 기록되고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어 후대에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 "기록경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경관 중에서 원형이 잘 보존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희귀한 경관은 "유산경관"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관은 문화재 및 문화유산으로

Table 1. Preceding Study on Landscape Type

investigator	title	type	
Lee mi-ha (200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ndscape of the historical district: focusing on the streets of Bukchon	Landscape	Physical scenery
Yu Wanzhong (2018)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urban landscape planning: Focusing on the case of Suwon City Landscape Planning	Visual Landscape	
Choi Seok-chang (2001)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equence landscapes in urban streets and spaces	Urban landscape	
Kevin Lynch (2003)	The Image of The City	Physical Landscape	
Yoon Sang-ho et al.3 (2003)	Research on landscape management measures in coastal areas	Coastal Landscape	
Lee Ho Wook (2019)	Japanese Colonial Period Changes in the landscape of Tongyeong city	Urban Landscape	Non-physical scenery
Kim Soon-ki (2018)	Composition of the tangible system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al landscape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landscapes	Cultural Landscape	
Lee Chang-seok, Yoo Young-han (2001)	Evaluation of Korea's cultural landscape, its reality, and its value by change and new paradigm	Cultural Landscape	
Karl Sauer (1925)	Morphology of the landscape	Cultural Landscape	
Choi Byung-doo, Goo Dong-Hoe (1995)	Postmodernism and Architecture as an Urban Cultural Landscape	Urban Cultural Landscape	
Lee Young-min (2001)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Study of Korean Urban Landscape	Urban Cultural Landscape	
Kim Sung-wan (2019)	The study of the landscape as a historical asset	Historic Landscape	
Hwang Ji-heun (2020)	A Study of Traditional Decorative Elements in the Design of Chinese Urban Humanistic Landscapes	Humanities and Social Landscape	

정의된다. 황지훈(2020)은 “중국 도시 인문경관 디자인에 나타난 전통장식 요소 연구”라는 연구에서 인문경관 혹은 문화경관을 사람들의 일상, 생산,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환경에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적 의미를 부가하는 특별한 경관으로 정의하였다. 칼 오티윈 사우어는 인간의 개입이 없는 경관을 자연 경관이라 정의하고, 인간의 개입이 더해진 경관을 문화 경관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는 경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용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문화경관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7].

문화경관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및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문화경관의 발굴과 보존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되며,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도시나 지역의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지역활성화의 개념 및 계획요소

현대 도시는 오랜 역사 동안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과 그 지역(地域)의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다양한 장소 또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전에는 도시가 주로 물리적인 계획과 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이해되었지만, 현대 도시의 관점은 이러한 물리적 측면 외에도 다양한 인간 활동과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현대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 소통, 문화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은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더 풍부하고 포용적인 방식을 채택하려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은 토지나 사회를 일정한 공간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8].

지역 활성화는 지역 네트워크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된 시스템으로 정의[9]하며 관계와 속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개념이다. 위인환(2020)은 도시 공간에서 지역 활성화의 주체는 항상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된 공간이 되며, 그 공간의 활성화 수준은 사람들이 도시를 걸을 때 느끼는 감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도시 공간의 활성화는 주로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경험에 의해 조절되며, 사람들이 직접 느끼는 감정이 도시 공간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도시의 공간 활동을 통

해 표출되는 인간심리 상태가 지역 활성화의 요인으로 간주 된다. 도시의 지역 활성화는 단순히 경제적 증가나 인구의 증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의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며 지역의 풍요로움과 특성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와 경관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Table 2. Planning Element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Sortation	Planning Dlement
Asheim, B. T., & Isaksen, A (1997)	It is divided into two concepts: regional activation by development entity and regional activation by specific regional factors
Tim Padmore & Hervey Gibson (1998)	Form of environment, industry, and market
Stuck & Broekel (2016)	Resource dominance, social capital intervention, role of market structur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novation of the national system

2.4 연구 동향 분석 및 연구 차별화

본 연구는 인천 배다리 지역의 도시경관과 지역 활성화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지역 활성화와 도시의 가로경관을 주제로 하는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경관 분야 연구 동향 분석은 학술논문 검색사이트(RISS)를 이용하여 ‘도시경관 & 경관계획요소’를 검색어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7개년의 경관관련 연구논문을 검색하였고 총 127개의 논문을 목록화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혹은 ‘경관계획’을 주제로하는 연구논문을 확보하여 연도별, 주제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관련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수행되고 있었다. 특히, 지역경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특히 문화와 예술 활용, 지역축제의 활성화, 콘텐츠 개발,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활용하고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특정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 및 도시 분야에서는 복합문화시설, 지역센터, 근대건축자산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 관련 학과에서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지역의 재생적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도시·건축, 문화예술 분야에서 폭넓은 관점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공간환경(건축, 가로 공공공간 등) 연구, 농촌과 낙후지역,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개발 연구, 재래시장, 축제, 문화이벤트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개발과 도시의 공간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공간환경 연구와 축제, 문화, 법제도 등을 다루는 비 물리적 연구로 구분될 수 있었다.

기존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 차별성은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도시경관 관련 기존 연구들에서 경관계획 요소와 지역 활성화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내재적 가치 요소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 요소로의 활용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둘째, 경관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는 물리적 경관계획 요소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정체성을 대변하는 비물리적 경관계획 요소와 지역 활성화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국내 연구는 미진한 수준이다. 셋째, 국내 대표적인 개항도시 인천시의 근대역사·문화를 주제로 경관 분야를 연구하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은 연구 대상과 주제로서 독창성을 갖는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 연구에서 기존의 경관 분야 연구들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물리적 경관 요소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Table 3. Research Trend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by Research Field (2018-2021)

Sortation	Planning Dlement
Management and Economy	Rural and underdeveloped areas, large-scale development, local industry,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festivals, culture, and local resources
Eocial Ecience	Festivals, local resources, administrative and policy, industry, development projects, cultural events
Architecture	Festivals, local resources, administrative and policy, industry, development projects, cultural events
City	Utilizing architectural assets,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urban image, and revitalizing traditional markets
Culture and Arts	Cultural resources, cultural space, festivals, cultural contents

3. 분석의 틀 및 조사개요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배다리의 물리적, 비물리적 경관요소와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Fig. 1)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배다리의 경관요소인 물리적·비물리적 경관 요소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경관요소는 '특화가로' 및 '근대건축물'로 도출하였고 비물리적 경관요소는 '배다리 문화'와 '근대역사자원'을 경관요소로 분석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지역 활성화'를 측정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역 활성화를 '재 방문률'과 '지역 인지도', '방문 만족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수 설정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인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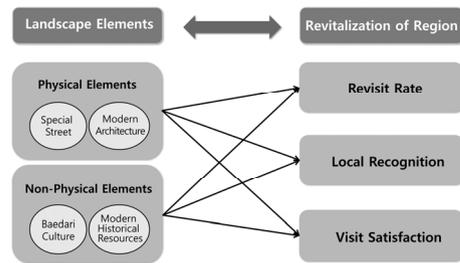


Fig. 1. Analysis Model of Research

$$y_1 = \alpha + \beta_1x_1 + \beta_2x_2 + \beta_3x_3 + \beta_4x_4 + \epsilon \text{ Regression Equation(1)}$$

$$y_2 = \alpha + \beta_1x_1 + \beta_2x_2 + \beta_3x_3 + \beta_4x_4 + \epsilon \text{ Regression Equation(2)}$$

$$y_3 = \alpha + \beta_1x_1 + \beta_2x_2 + \beta_3x_3 + \beta_4x_4 + \epsilon \text{ Regression Equation(3)}$$

y_1 = Revisit Rate, y_2 = Local Recognition, y_3 = Visit Satisfaction

x_1 = Special Street x_2 =Modern Architecture x_3 = Baedari Culture

x_4 = Modern Historical Resources α : Section(intercept) $\beta_1 - \beta_4$: Regression Constant

3.2 설문조사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동구 옛 배다리의 도시경관요소가 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하고자 거주자와 방문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배다리 지역의 거주민 및 방문객 3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기기입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했습니다. 총 310부의 유효한 설문 응답이 최종적으로 수집되어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배다리지역의 지

역인지도와 활성화 정도, 재방문 여부 등을 거주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인천시 동구 배다리지역의 지역 활성화와 인과성을 갖는 경관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계획요소를 물리적, 비물리적 계획요소로 구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관계획요소를 분석하였다. 셋째는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 거주기간, 방문경험과 목적에 대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설계는 인천의 근·현대 문화와 역사를 비교적 잘 유지하여 보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옛 배다리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방문객 인식조사를 통해 재방문여부와 방문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역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의도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은 연구대상지 거주민과 방문객으로 구분하였고 지역거주자에게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역인지도와 지역 활성화에 대하여 주민의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지역인지도 향상이 배다리의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 여부와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반면, 배다리 지역 방문객들에게는 배다리의 방문경험을 토대로 향후에도 재방문 여부를 조사하여 배다리지역의 재방문율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able 4. Survey Details

Sortation	Planning Dlemen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Belly Legs	Incheon Pear Bridge Awareness Survey
	Investigation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Incheon Baedari area
	Investigation on the intention of revisiting Incheon Pear Bridge
Factors influencing the local revitalization of the pear bridge	Physical landscape elements (specialized streets, buildings)
	Non-physical landscape elements (Baedari culture, modern historical resources)
Surveyor General Matters	Population characteristics (gender, age)
	Characteristics of residence (period of residence)
	Characteristics of visit (visit experience, purpose of visit)

4.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관계획요소 분석

4.1 거주자와 방문객의 인식차이 비교분석

거주자와 방문객에 따른 경관계획요소 4가지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첫째, 거주자와 방문객에 따른 특화가로의 독립표본 t검정 분석결과, 거주자(M=3.55)와 방문객(M=3.84)간에 인식 차이를 보

였다. 즉, 거주특성에 따른 특화가로 인식도간 차이는 방문객이 거주자보다 특화가로에 대해 통계적($t=2.457$, $p<0.05$)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물리적 경관요소인 근대건축물의 독립표본 t검정 분석결과, 거주자(M=3.72)와 방문객(M=3.94)간에 인식 차이를 보였다. 즉, 거주특성에 따른 근대건축물에 대한 인식도는 방문객이 거주자보다 통계적($t=1.999$, $p<0.05$)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음으로 비물리적 경관요소인 배다리문화의 독립표본 t검정 분석결과, 거주자(M=4.10)와 방문객(M=4.15)간에 인식 차이를 보였으며 방문객이 거주자보다 배다리문화에 대해 통계적($t=0.522$, $p<0.1$)으로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비물리적 경관요소인 근대역사자원의 독립표본 t검정 분석결과, 거주자(M=3.75)와 방문객(M=4.02)간에 인식 차이를 보였고 거주특성에 따라 근대역사자원의 인식도간 차이는 방문객이 거주자보다 통계적($t=2.337$, $p<0.05$)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거주자와 방문객의 경관 계획 요소에 대한 인식차이를 물리적 경관요소와 비물리적 경관요소 각각에 대하여 인식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문객이 거주자 보다 경관계획요소 모두에 대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Independent Sample t Test

Sortation	Resident		Visitor		t-test	
	M	SD	M	SD		
Physical Landscape	Special Street	3.55	1.062	3.84	0.989	2.457**
	Modern Architecture	3.72	0.976	3.94	0.954	1.999**
Non-Physical Landscape	Baedari Culture	4.10	0.932	4.15	0.857	0.522*
	Modern Historical Resources	3.75	1.049	4.02	0.873	2.337**

4.2 재 방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

배다리 지역의 재방문율 종속변수로 하고 특화가로, 근대건축물, 배다리문화, 근대역사자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회귀방정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F값은 4.957이고, 유의확률 P값은 0.001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6.1%로 설명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설명력은 분석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전반적으로 설명변수

가 다소 제한된 변수들을 대상으로만 분석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배다리의 재방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는 물리적 경관요소중에는 특화가로가 통계적 유의성(P값 0.04)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물리적 경관요소(배다리문화, 근대역사자원)와 물리적 경관요소 중 건축물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Table 6.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visit rate and landscape fac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B			Standard Error	Tolerance
(constant)		-0.236	0.574	-0.414	0.679	
Revisit Rate_Special Street	0.139	0.251	0.122	2.061	0.040	0.679 1.473
Revisit Rate_Modern Architecture	0.111	0.206	0.130	1.583	0.114	0.627 1.594
Revisit Rate_Baedari Culture	-0.026	-0.056	0.152	-0.369	0.713	0.607 1.647
Revisit Rate_Modern Historical Resources	0.077	0.153	0.140	1.095	0.274	0.629 1.590

R = 0.247^a R² = 0.061 Durbin-Watson = 1.211
 F = 4.957 P = 0.001^a

4.3 지역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

배다리 지역의 지역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특화가로, 근대건축물, 배다리문화, 근대역사자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방정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F값은 3.222이고, 유의확률 P값은 0.0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4.1%를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회귀식의 설명력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배다리의 지역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는 물리적 경관요소 보다는 비물리적 경관요소인 배다리문화와 근대역사자원이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성(유의확률 0.009, 0.023)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배다리 문화는 지역인지도와 정(+)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나 근대역사자원은 음(-)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상반된 인과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물리적 경관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ocal awareness and landscape fac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B			Standard Error	Tolerance
(constant)		2.044	0.566	3.609	0.000	
Local Recognition_Special Street	-0.078	-0.140	0.125	-1.120	0.264	0.644 1.554
Local Recognition_Modern Architecture	-0.062	-0.116	0.135	-0.862	0.389	0.618 1.619
Local Recognition_Baedari Culture	0.191	0.394	0.149	2.638	0.009	0.601 1.665
Local Recognition_Modern Historical Resources	-0.163	-0.313	0.137	-2.278	0.023	0.613 1.630

R = 0.201^a R² = 0.041 Durbin-Watson = 1.298
 F = 3.222 P = 0.013^a

4.4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

배다리 지역의 방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특화가로, 근대건축물, 배다리문화, 근대역사자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회귀방정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F값은 2.822이고, 유의확률 P값은 0.02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

Table 8.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and visiting satisfaction and landscape fac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Significance Probability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B			Standard Error	Tolerance
(constant)		1.253	0.404	3.106	0.002	
Visit Satisfaction_Special Street	-0.023	-0.030	0.099	-0.300	0.765	0.550 1.817
Visit Satisfaction_Modern Architecture	-0.067	-0.090	0.104	-0.867	0.387	0.526 1.901
Visit Satisfaction_Baedari Culture	0.197	0.307	0.115	2.682	0.008	0.589 1.699
Visit Satisfaction_Modern Historical Resources	-0.184	-0.263	0.103	-2.542	0.012	0.607 1.649

R = 0.189^a R² = 0.036 Durbin-Watson = 1.435
 F = 2.822 P = 0.025^a

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3.6%로 분석되었다. 배다리의 방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는 물리적 경관요소보다는 비물리적 경관요소인 배다리문화와 근대역사자원이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성(유의확률 0.006, 0.012)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다리 배다리문화는 방문만족도와 정(+)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나 근대역사자원은 음(-)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상반된 인과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천시 동구의 배다리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 요소와 지역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물리적 및 비물리적 경관계획 요소를 구분하였고 이들이 각각 지역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주안점을 두고자 한 점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비물리적 경관요소가 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인과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의도하였다. 배다리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고유의 장소성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다리의 지역인지도와 방문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지역 문화와 근대역사자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방문자의 만족도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물리적 경관요소보다는 비물리적 경관요소에 중점을 두고, 특히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재방문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특화가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물리적 경관환경의 개선이 재방문율 향상에 중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배다리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이 지역 활성화에는 중요하지만, 재방문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지역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경관계획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경관요소 발굴과 특화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물리적 경관요소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물리적 요소 중심의 경관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천 배다리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도시경관 연구로써, 해당 지역의 장소성 및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향후 다양한 비물리적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W. S. Choi,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treet landscape elements and street vitalization : focused on the Sinsadong Garosugil in Seoul",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Korea, pp.1, 2012.
- [2] I. H. Wi,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Incheon Bae Bridge: Focusing on Urban Landscape Compon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hungwoon University, Korea, pp.33, 2020.
- [3] H. G. Yeo, S. A. Jung,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Offices in Seoul". Urban Planning Society. Vol.37, No.7, pp.117-135, 2002.
- [4] W. J. You, "A Study on the Urban Landscape Plan: A Study on the Urban Landscape Plan in Suwon City", Seoul Law Review, Vol.17, No.2, pp.1-16, 2009.
- [5] S. C. Choi,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equence Landscapes in Urban Street Space", Ph.D.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Korea, pp.20, 2002.
- [6] B. D. Choi, D. H. Goo, "Postmodernism and Cultural Space Postmodernism and Architecture as an Urban Cultural Landscape". Space and society. Vol.5, pp.125-152, 1995.
- [7] Carl O. Sauer,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2(2), pp.19-53, 1925.
- [8] C. S. Lee, Y. H. Yoo, "Value evaluation based on Korea's cultural landscape and its change in substance and new paradigm". Journal of the Korean Ecologic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Ecological Society, Vol.24, No.5, PP.323-332, 2001.
- [9] S. W. Choi, "The Impact of Museums on Strengthening Local Identity", Ph.D. dissertation, Gyeonggi University, Korea, pp.32, 2013

위 인 환(In-Hwan Wi)

[정회원]



- 2023년 8월 :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수료)
- 2018년 8월 ~ 현재 : ㈜감성도시 디자인 대표이사

<관심분야>

도시경관, 도시계획, 도시재생

김 성 규(Sung-Kyu Kim)

[정회원]



- 2018년 2월 :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도시계획, 공공건축, 사업타당성